



황성의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 PROFILE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외국인 투자, E&HS (환경, 산업안전 및 보건), M&A 업무, 일반 기업법무이다. 외국인투자를 통한 기업 설립 및 M&A 과정에서의 환경, 산업안전 및 보건 관계 법규의 Compliance 업무를 수행하였고 화학물질 규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 이슈에 대한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안전 기준 자기인증, 카셰어링 관련 인허가, 자율주행 자동차, Connected Car 및 한국의 레몬법 교환환불 제도 관련 자문을 수행하였고 자동차 판매 및 정비, 표시광고 관련 업무도 수행하였다.

기업 법무의 일환으로 환경, 산업안전 및 보건, 위험물, 고압가스,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자동차 안전법규, 자동차 교환환불 계약 및 중재절차, 방송통신 관련 규제법규(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건설, 에너지, 제약, 다단계 관련 업무 및 공정거래법 이슈와 관련한 자문을 수행하였다. 또한, 인수합병 과정의 EHS 실사, 공장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EHS 이슈를 자문하였고 관련된 소송업무에서 고객을 대리하거나 변호업무를 수행하였다.

### 학력

- 1994-1997 전남과학고등학교
- 1997-2002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 2002-2006 서울대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졸업(행정법 전공)
- 2006-2011 서울대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공)
- 2012-2013 미국 University of San Diego(LL.M.)

### 경력

- 200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2004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 2007-2019 김앤장 법률사무소
- 2013-2014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소재 Gibson, Dunn & Crutcher Visiting Attorney(6개월)
- 2014-2015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 자문 변호사
- 2015-현재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위원
- 2017 한국지엠(주) 파견 근무(5개월)
- 2019-현재 법무법인(유) 세종
- 2021-현재 Co-Chair, Amcham Energy & Environment Committee

### 자격

- 2004 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
- 2014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 언어

- 한국어, 영어

## 자동차 산업 ESG 전략

ESG는 폭풍인가 파도인가. 기업 경영과 관련된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요소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정부, 시민사회, 투자자 및 금융기관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시대에 기업의 지속 가능한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단계이다.

종래 지속가능성 관련 논의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는 기업 활동을 외부적 영향의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ESG는 역으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기업 활동의 비재무적 요소들의 특성이 다시 기업 경영에 미치는 내부적 영향을 정량적, 정성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틀이다. ESG 이슈는 물과 공기의 문제라고 하겠다.

20세기 초 상업화된 자동차 산업은 근대 산업사회의 근간이 되었고 부품 제조 및 완성차조립과정에 연계된 수백만의 고용 창출, 석유화학과 철강기업의 성장, 이와 발맞춘 도시 및 산업구조의 변화를 주도했다.

이제 21세기 자동차 산업은 전동화(Electrification), 자율주행과 자동차 사물인터넷(Autonomous Driving and Automotive IoT), 그리고 공유 차량을 포함한 모빌리티(Shared Mobility) 전반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 저감, 공급망에서의 순환 경제, 재활용 등 지속가능성 관리, 그리고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등 디지털 책임의 측면에서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자동차 산업의 ESG 전략 수립 및 실행 방법을 논의해 본다.

### 보고와 공시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기업 경영에서 ESG 전략의 수립 주체는 기업이다. 유럽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ESG 관련 논의는 대부분 공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ESG는 국제 및 국내의 규범적 기준과 상호작용하면서 달성해야 할 실체(몸통)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를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게 외부적으로 공시하는 형식(의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범적 측면에서는 외부적인 공시 규범이 형성되어 가는 경향을 우선 간파할 수 있으나 사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기업 경영 전략과 관련되는 부분은 오롯이 기업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 전략과 방침 수립이 절실하다

ESG 전략 수립의 첫 시작은 중대성(Materiality) 평가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중대성 평가는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한 축에 두고 다른 한 축에는 이해관계자가 고려하는 중요도를 놓고 4분면에 펼치는 작업이다. 다만, 종래의 중대성 평가는 보고(Reporting) 목적의 요소 나열과 기업 활동의 매칭에 그친 단점이 지적된다.

기업의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과 비용에 대한 고려를 배경에 두고 기업이 내부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역량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설정 작업을 해야 한다.

자동차 산업 공급망에서 주요한 환경, 사회 이슈를 범주화하면 아래 14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겠다. (Cappgemini, 2020)

1. 지속가능한 연구 개발(환경 영향 저감, 자원 재활용성 고려), 2. 제품의 지속가능성(연비 향상, 전기자동차 전환 및 생분해성 부품), 3.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물류, 유통, 창고, 재고 관리), 4. 금속, 재료 및 부품 조달의 환경적 책임, 5. 부품 및 재료 조달 과정에 대한 인권 및 환경 요소를 고려한 검증, 6. 지속가능한 제조과정(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증진), 7. 소비자를 고려한 폐기물 재활용 및 제품수명 종료 시 반환 정책, 8.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 9. 판매, 마케팅 및 사후관리 지속가능성(기 판매 모델의 배출가스 관리, 부품 리버피시), 10. 모빌리티와 디지털 서비스(차량 공유, 구독모델 및 사물 인터넷), 11. 배출가스 관리 및 안전 증진(제품 전생애 배출가스 관리), 12. 순환 경제 촉진, 13. 노동정책(노동3권 및 종사자 안전관리), 14. IT의 지속가능성.

이러한 각 범주의 요소들 중 기업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비추어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이 현실적으로 변화시키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작업이 필요하다.

## 구체적 사업 모델로 실현하기 위한 기획 필요

방침과 전략의 수립 이후에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절차에 대한 통합 및 결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 수치(Key Performance Index)의 설정을 통하여 방침과 전략의 구체적인 이행이 관리되고 측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리의 수단으로서의 측정과 검증은 ESG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환경, 사회적 이슈 각각에 대한 Governance 측면의 접근이 될 것이

다.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ESG 전략의 이행은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며 중앙에서 총괄 관리되지 않는 ESG 경영전략은 허사에 그칠 우려가 크다.

복잡한 공급망 가치사슬 속에서 자동차 산업의 ESG는 개별 기업이 혼자서 대응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도 많다. 연구개발 단계에서 제조, 판매 및 유통 그리고 사후관리와 제품 수명 종료(end-of-life)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속에서 지속가능성의 세부적 요소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절차와 소통 수단의 마련이 필요하다.

## 사회적 이슈 고려의 중요성

전기자동차로의 전환과정은 제작 시간의 단축, 부품수 감소로 인하여 제작과정의 고용 인력이 감소하게 된다. 오히려 연비 개선, 자율주행, 공유차량 등의 제작과정에서 엔지니어링과 기술 관련 인력의 고용이 증진된다.

나아가 유지관리 소요 감소, 판매망의 디지털화 등으로 판매 유통의 공급망에도 큰 변화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전기 수요의 증가는 에너지 전력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구리, 코발트, 리튬, 니켈 등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희귀 금속류에 대한 수요가 현재의 공급망 대란을 일으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차량도 모빌리티 접근성의 측면에서 더 많은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해야 할 것이다. 도로 설계, 도시계획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자율주행 차량의 기술적 오류, 사용자 과실 및 사이버 테러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안전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의 논의가 시급하다.

## 다시 강조되는 전략과 거버넌스

2030년께 자율주행 차량의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기업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실현 가능하고 비용 효과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어떠한 기술이 표준이 되고 시장을 선점하게 될지, 전기자동차 보급 시나리오가 어떻게 실현될지, 외부효과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분배될지, 규제가 시장을 어떻게 형성해 갈지 불분명하다.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 속에서 차지하는 각 단계, 위치별로 기업경영의 비전 확정, 전략 수립, 리더십의 전개, 신기술의 유연하고 혁신적인 적용을 통해 ESG의 풍향을 읽고 파고를 넘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EV